

국회 국제경기 지원특위 F1 부실 준비 질타

“언제까지 공사만 할 거냐” “지반 연약해 안전에 문제”

F1 대회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주 서킷 완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연약지반 등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F1 대회 중계에 대한 주간 방송사와의 계약도 아직 체결하지 못했으며 F1 티켓 판매율도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오후 열린 국회 국제경기 지원 특위에서는 전남도의 부실한 F1 대회 준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당초 7월말 완공 예정이었던 서킷 공사가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아 F1 연맹의 감수가 잇달아 지체되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F1 대회 조직위 정순남 집행위원장은 “연약지반 처리 등에

따른 안전 문제가 중요한데 자신 있느냐”는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예산이 덜 투입되면서 안전 부분에 전반적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F1 대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조직위 집행위원장이 인정한 셈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F1 조직위는 이날 특위 답변을

중계계약 체결 못하고

티켓 판매율 20% 저조

월드컵·지방선거 겹쳐

홍보 제대로 못 했더니...

통해 주간 중계사 선정과 관련, KBS 측과 협의하고 있으나 중계권

료를 낮게 제시함에 따라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남도와 F1 조직위는 F1 대회를 200여개국 6억명이 시청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회 50여일을 남겨놓고도 아직까지 주간 중계사도 선정하지 못한 것이다.

F1 관람 티켓도 전체의 20% 정도를 판매하는데 머무른 것은 물론 외국인 관람객 티켓 판매도 전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대회 첫해 적자 규모도 당초 50억원 정도로 예상했으나 적자 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대회 3년차까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F1 조직위는 미진한 홍보 문제와 관련,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의 국내외 일정으로 제한적이었던 대회 3년차까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답변해 “월드컵이 갑자기 개최됐느냐. 극히 무성의한 답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병석 의원은 “(전남도와 F1 조직위) 엄청난 자료와 계획을 갖고 적자가 나면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를 압박해 매우면 된다는 자세를 가지지 않았을 의외로 F1 연맹의 실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데다 대회의 안전성이 중요한데 아직 서킷의 표층도 커버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제...

윤 의원의 이어 “대회 50일을 남겨놓고도 아직까지 관람객 유인을 위해 크루즈 선 유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서리가 내리는 시기에 캠프촌, 텐트촌을 조성한다는 것이 현실성 있는 계획이냐”고 부실한 대회 준비를 추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F1 대회 등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재정부 장관이 특위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회원 30여명은 2일 광주 서구 농성동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폭우 피해를 입은 북한 개성·자강도 지역에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1억원 이상의 성금모금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도 함께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론 고조 대북 쌀지원 정부 고심

與내서도 “지원 나서야” 통일부 “입장 변화 없다”

어려움에 처한 북한에 쌀 지원을 하자는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의 쌀 재고가 넘쳐나고, 쌀값 안정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북 지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1일 열린 민화협 창립 12주년 기념행사에서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탈피할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정부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촉구했다.

축사에 나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맞서서 당당하게 원칙을 지키는 대북 정책을 펼쳐 나가야겠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동포를 외면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안함 ‘5·24 조치’에 따라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보류한 정부는 현재까지 신중함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현재로서는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또 국내 쌀 수급과 대북 쌀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측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책임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뚝·24조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북 쌀 지원에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상황변화를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병행하고 있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전제조건을 달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북측의 쌀 지원 요청을 비롯한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대북 쌀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각계 단체와 야5당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신청한 100t 규모의 쌀 반출을 통일부가 승인할지 주목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오현섭 파문’ 민주 진상조사

민주당이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불법 자금 수수 파문과 관련, 자체적인 진상 조사에 나섰다. 특히, 오 전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수 전현직 시의원들은 물론 중앙당 핵심 인사들에게도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직자 2명 여수 파견

중앙당 연루 등 파악

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은 최근 당직자 2명을 여수에 파견, 오 전 시장의 불법 자금 수수에 대한 지역 여론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전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여수시의원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민주당 관련 상황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오 전 시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중앙당 핵심 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설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체적인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물가대책 재탕 삼탕... 구조적 안정방안 미흡

정부 ‘추석 민생과 물가 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2일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이 매년 발표했던 내용과 별반 다른 게 없고 구조적 안정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물가 수준이 높고 내릴 때는 조금 내리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하방 경직성도 뚜렷하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느리게 개선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소비자 물가가 생산자 물가보다 높게

상승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듭하는 물가를 잡겠다고 발표한 물가 안정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년과 별반 다른 수준이다. 농축수산물물의 의무수입물량 조급 도입, 가공식품 관세를 인하, 가격 상승 수산물의 공급 확대 등은 매년 나왔던 것이다.

에너지 물가도 셀프유류 등 저가유류 확산, 가격표시판 개선 등도 새롭지 않은 내용이며 공공요금 인상 제한은 이미 지난달에 발표된

사안이다.

확원비 공개 확대, 대학 등록금 상한제 정착, 초당 요금제 확대 등도 자주 언급됐었고, 개인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 점검 강화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가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시도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산업별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보건, 의료, 통신, 교육 등 민생 분야의 진입 규제 정비 등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구조적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슬로시티 증도' (Slow City Jeongdo) featuring a scenic view of the island and promotional text for a 1-day experience tour.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El Dorado Resort and bus services.

Advertisement for 'movieholic' featuring movie listings for '아저씨' (The Man from Nowhere) and '인생선' (The Line of Life) at various theaters like Columbus Cinema and Megabox. Includ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